

농어촌公 전남본부, 지역개발로 농어촌 생활공간 질 높인다

머니투데이 | 전남=나요안 기자

2024.11.13 10:06

<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4111309553820763&type=1>

기사주소 복사

전남 지자체와 함께 171개 지구, 1307억 규모 추진...더 나은 삶의 밑거름 조성



전남 여수시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전경/사진제공=농어촌공사 전남본부

한국농어촌공사(이하'공사') 전남본부가 농어촌 지역의 생활 개선과 활력 회복을 위해 전남도 내 각 지자체와 함께 171개 지구 1307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.

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 및 거점인 읍·면 소재지에 교육·복지·문화·경제 등의 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가 목적이다.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장흥군 농촌중심지활성화, 나주시 동강면 기초생활거점 등 총 98지구를 추진 중이다. 현재는 배후 마을 주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 구축해 중심지와 거점 간 서비스를 공유하고,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소규모 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 31개 지구를 추진 중이며, 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마을 내 생활 안전 향상 등 안전 인프라도 함께 조성해 어촌사회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.

이 외에도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, 농촌 내 유해시설을 정비해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
조영호 공사 전남본부장은 "농어촌 지역이 과소화와 고령화 등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'지역개발사업'이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"며 "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인 공사가 성실한 사명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[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